

문화광장



김 정 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또 기생충 이야기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이야기는 영화감독 봉준호를 가능하게 한 우리나라의 영화인력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진출을 위해서 준비해왔듯이 오늘의 성과를 낳기 위해서 차근차근 인재양성부터 제도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영상산업 활성화 등의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으며 그 결실이 봉준호라는 뛰어난 인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영화아카데미(KAFA)는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상과는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 운영 영화

봉준호 감독과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인력 양성 교육기관이다. 그 시작은 모순적이게도 미국의 한국영화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1984년에 시작됐다. 이전에는 20여 개의 영화사만을 허가해 연간 90여 편의 한국영화를 만들게 하고, 반대급부로 외국영화 수입권을 각 영화사에 2편씩 주었던 폐쇄적인 한국영화 시장은 1987년 7월 완전한 수입 자유화와 영화시장 개방을 미국에 약속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환으로 인재양성 사업이 시작된다. 매년 10여 명을 선발해 1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시작한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졸업생의 34% 정도가 우리 영화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화아카데미 출신 대표 감독으로는 ‘암살’의 최동훈, ‘8월의 크리스마스’의 허진호, ‘하녀’의 임상수 등이 있다.

봉준호 감독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로 유명한 월북작가 박태원을 외할아버지로 두고, 아버지는 디자인 교

수로서 예술적 토양을 갖쳤고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확장시켰다. 이런 봉준호를 선발해 교육과 영화 제작 작업으로 한국영화계의 거목으로 만드는 데에 한국영화아카데미는 게이트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 1억 원이 넘는 촬영 카메라와 필름 값 등의 부담 때문에 영화 만들기에는 소수만이 가능한 시대였다. 그런데 무료로 영화를 만들 기회를 주는 한국영화아카데미는 가진 것은 꿈뿐인 젊은 영화인들에게 선망의 학교였다.

봉준호 감독이 칸과 아카데미 영화제를 동시에 수상하는 등 전 세계 200여 개의 영화상을 받은 업적은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생긴 지 36년 만에, 봉준호 감독이 졸업한 지 26년 만에, 그리고 첫 상업영화 ‘플란다스의 개’(2000년)로 데뷔해 20여 년간 7편의 영화를 만들며 얻어낸 결과다. 연간 2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이론 성과로서는 최고의 가성비비가 아닌가 싶다. 국민

의 세금이 가치 있게 사용된 사례다. 휘황찬란한 건물이나 기념비처럼 눈에 보이고 생색내기 좋은 것에 돈을 쓰는 것보다 사람을 양성하는, 즉 사람에 투자하는 돈은 그 성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 한 개인이 성장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는 데는 보이지 않은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그 성과는 이번처럼 역사를 새로 쓰는 혁신이 될 것이다. 봉준호 감독도 쌓이 없고 생활비가 없어 영화를 포기하려고 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제주도에서 서울이나 육지로 자녀를 대학 보내는 부모는 알겠지, 기본적으로 집값과 식비로 100만 원 정도 자신의 집에서 다니는 그 지역 학생들보다 추가로 들어간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산 되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접지 않고 펼쳐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봉준호를 키우기 위한 시작일 수 있다.

열린마당

책 한권의 힘



서 유 정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새로운 지식과 현안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도 소속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까지 독서통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선택해 읽은 후, 제출한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는 과정으로 경영, 직무, 정보기술,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서 통신 교육은 전문성 함양 분야와 직무능력 향상 분야도서를 교육과정 교재로 구성해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으로, 경제·경영, 인문, 자기개발, 정보기술,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 대해 과정보로

100종 이상의 도서를 제공한다. 수강자는 월별로 1과정·1도서를 선택해 책을 읽어 과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및 첨삭지도 등을 통해 피드백이 이뤄진다. 또한 6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획득하면 수료 한 것으로 인정해 1과당 3시간, 연간 최대 15시간의 상시학습 시간도 인정받는다.

독서통신교육과정을 통해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기존보다 확대된(1인 3회→1인 5회)교육과정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기대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음의 안정도 가져다 준다. 정조대왕은 독서계획을 세워놓고 독서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독서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평정심과 집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책 한권의 힘,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큰 낙이 될 것이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전략공천 반발 예비후보 선거운동 관심

활동에는 제재 근거 없어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선거구 전략공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박희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 중앙당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민주당 예비후보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상 제재근거는 없지만 만일 비방 등 해당행위를 할 경우 윤리위 제소 등 당원자격 박탈을 논의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전까지만 가능.

중앙당 관계자는 “후보 등록 전 여론조사를 한다면 민주당 후보로 넣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상태에서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 고대로그자

대구 남구청에 천혜향 전달

○…제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청 공직자들에 대해 전략공천 30상자를 전달해 격려. 대구시 남구는 신천지대구교회 가 소재한 지역으로 전국에서 제

주시와 유일하게 장애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긴밀한 업무 공유 및 협조체계를 유지.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천혜향으로 대신 전달하면서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 이윤형기자

여성의 날에 화훼 소비 촉진

○…제주도교육청이 9일 세계 여성의 날(8일)을 기념해 모든 여성 직원에게 장미꽃 1송이를 선물해 눈길.

도교육청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화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장미꽃 선물 이벤트를 준비.

도교육청 측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애쓰는 여성 직원을 격려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직장가 가정의 양립하고 균형이 맞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 김지은기자

사설

전국 곳곳서 감염 확산, 방심하면 안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도 잇따라 격리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이후 도내에서는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이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과제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서귀포지역 호텔에 근무하는 코로나19 제주2번(22·여) 확진자가 입원한지 15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7일 퇴원했습니다. 이날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제주대병원에는 제주1번 확진자(22·해군 상병)도 증세가 호전됐으나 군에서의 단체생활을 고려해 퇴원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혀 조만간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확진자 4명과 접촉한 243명 중 75%(184명) 이상 격리가 풀렸습

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제주지역이 코로나19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신학기 개학을 앞둔 도내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 유학생과 대구·경북 지역 학생 관리가 발등에 불입니다. 현재 도내 대학에 적을 둔 이들 지역 학생들이 적잖아서 그렇습니다. 이달 4일 기준 제주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 301명 가운데 82명이 격리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입도한 대구·경북 지역 학생 중 32명이 2주(최대 잠복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대유행(팬데믹)에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결코 방심해선 안될 것입니다.

‘총선전쟁’ 본격화… 유권자 선택 지금부터

제주지역 각 정당들이 이번주를 계기로 본격적인 ‘총선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처음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는가 하면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번주내 경선을 통한 후보자확정 후 내주 선대위 구성을 추진중입니다. 민생당 제주도와 정의당 제주도당도 금주중 본격 준비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8일 ‘제주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직능단체 대표 등 100명을 남기는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오는 12~13일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 후 다음주 중 선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각 지역구별 유권자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하는 100% 국민경선으로 진행됩니다.

민생당 제주도당도 이번주 중

중앙당 관련 지침에 따라 선대위 구성에 나설 예정인가 하면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금주내 시민선거대책본부 가동을 추진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36일을 앞둔 시점에 도내 각 정당들이 본격 총선전에 들어가면서 유권자들의 선택, 감시의 ‘눈’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각 정당별 지역구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신문사 등을 통한 여론조사를 전후해 우위를 점하려 저마다 불꽃튀는 선거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즈음 선거전은 탈법·불법운동으로 흐를 가능성이 큼니다.

유권자들은 이 시점에 지역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해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판단에 나서야 합니다. 어느 후보든 탈·불법 선거운동 사례에 대해선 감시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감시해야 하고, 후보자 선택에 현연 지연 학연이 아닌 정책공약과 정당 평가 등을 통한 결정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은 선거일만이 아닌 지금부터입니다.

부 고

광산김공 영식(대동공업(주) 제주대리점 대동기계·남성상사 대표(향년 86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8일 03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 2020년 3월 11일(수요일)
- ▶ 발인일시 : 2020년 3월 12일(목요일) 오전 6시
- ▶ 발인장소 : 제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 ▶ 장 지 : 제주시 용강동 가족묘지 선영

부인	김경순	손자	김민규
아들	김수용	손녀	김지석
	김수현		김민형
	김태형		김민주
딸	김미현	외손자	이상철
	김미정		고지완
며느리	김유랑	외손녀	이연지
	김현실		고은지
사위	이웅진(敬)	손서	김동환
	고종호		

※ 연락처 : 김수용 010-2698-6620
김수현 010-2699-6620
김태형 010-7269-4226
김미현 010-3007-8624
김유랑 010-2698-4129
김현실 010-9609-9407

부 고

김명철(로평정언 변호사) 아버지 김해김공 시삼(국가유공자·향년 76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8일 17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 2020년 3월 10일(화요일)
- ▶ 발인일시 : 2020년 3월 11일(수요일) 오전 7시
- ▶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2빈소
- ▶ 장 지 : 양지공원

부인 이춘자
아들 김명철 며느리 나진이

딸 김연희 사위 김승빈

연육 고성현

※ 연락처 : 김승빈 010-2689-7538

부 고

김은길 아버지 광산김공 두천(향년 80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9일 06시 1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 2020년 3월 10일(화요일)
- ▶ 발인일시 : 2020년 3월 11일(수요일) 오전 7시
- ▶ 발인장소 : 중앙병원 (이호동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 ▶ 장 지 : 성산읍 삼달리 공동묘지

부인 강복생
아들 김은길 며느리 강임선
호길 김복연
승길 최숙희
호봉 정명순
딸 김광자 사위 김수현

※ 연락처 : 김은길 010-2621-1954
김호길 010-7251-9988
김승길 010-4544-7703
김호봉 010-8264-4410
김광자 010-7584-919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출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